

# 서울시민 환경 만족도, 지역차이 뚜렷

### 동남권 만족도 10점 만점에 7.86점 서남권, 상업시설 등 만족도 낮아 교육·소득 높은 지역, 배태성 높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동남권은 만족도가 높고 동북·서남권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사회발전연구소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 거주 중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동남권이 7.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권(7.81점), 서북권(7.62점), 서남권(7.52점), 동북권(7.39점) 순이었다.

특히 동남권은 상업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서남권은 상업시설과 공공기관 만족도가 낮았다. 의료시설의 경우 동남·도심권의 만족도가 높았고 서울의 기타 지역은 인천·부산·대전·광주 등 다른 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문화시설 만족도 역시 동남·도심권이 높았다. 동남권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만족도도 높았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지

역발전이나 만족도에 있어 ‘강남 대강북’의 구도라기보다는 동남권 vs 동북·서남권의 구도라 할 수 있다”며 “동북과 서남을 잇는 대각선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수준에서 지역 만족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가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곳인지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게 한 결과 동남권 주민들이 꿈을 실현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꿈의 실현 항목에서 동남권이 3.27점으로 1위였다. 도심권(3.33점), 서북권(3.26점), 서남권(3.19점), 동북권(3.14점)이 그다음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시내를 비교하면 동남권과 도심권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곳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동북권이 가장 낮았다”

고 진단했다.

동남권은 개인 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을 11개 범주로 나눈 변수를 활용해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동남권이 6.56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권(6.44점), 서북권(5.55점), 서남권(5.49점), 동북권(5.47점)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이 타인과 얼마만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 5대 권역의 배태성을 측정해 비교했다. 배태성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수 등의 변수를 활용해 측정한다.

배태성 점수는 도심권 7.35점, 동남권 7.09점, 서남권 6.90점, 동북권 6.82점, 서북권 6.67점 순이었다.

연구진은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배태성 측면에서의 역량 또한 높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배태성도 낮았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 정책을 펼치는 경우 단순히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도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민 의견으로 만드는 ‘자전거 도로’

‘오픈라이더’ 통해 인프라 개선 건의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전거 애플리케이션 ‘오픈라이더’를 통해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오픈라이더는 자전거길 안내와 속도계, 주행기록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는 자전거 전문 앱으로, 100만명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쿠팡과 함께 이 앱에 시민 의견을 접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라이딩 중 자전거도로 단절 등 불편

한 점을 발견하면 앱에 추가된 ‘라이딩 환경 개선’ 탭을 통해 사진과 함께 의견을 내면 된다. 20개 이상 ‘공감’을 받으면 정식 제안으로 접수돼 일주일 안에 답변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사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제안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건의하며 일종의 활동가 역할을 하는 ‘서울 자전거메이트’ 5000명을 모집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립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서울시, 지난 25일 조례·규칙 심의회

서울특별시립병원에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

된 조례 81건과 규칙 14건을 각각 5일,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81건의 조례는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김현정 기자

# 지하시설물 매설기준 마련... 도로함몰 방지

### 서울시, 관리기준 내년부터 시행 사고 예방·추가 공사대비 안전거리 시내 하수관 약 1.3만곳 손상 우려



지하매설물. /서울시

서울시는 전기·통신·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할 때 하수관과 최소 30c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새로 설치된 지하시설물이 기존 하수관로를 손상해 도로함몰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고, 향후 추가 공사에 대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2018년 CCTV 등을 이용해 하수관로 154km 구간을 조사한 결과 194곳이 다른 시설물에 의해 손상된 것

으로 파악됐다. 이를 시내 전체 하수관로 1만728km에 대입하면 약 1만3000곳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공간에는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지만 하수관로가 파손될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렵다”며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방치된 악기, 장인 통해 재탄생 ‘나눔 캠페인’

지난해, 40일간 626점 악기 기증

서울시는 악기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악기기증·나눔사업’을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악기기증·나눔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집 안에 방치돼 있던 악기를 기증하면 낙원악기상가 수리장인의 손을 통해 새 악기로 재탄생된 뒤, 비용의 문제 등으로 악기를 가질 수 없었던 시민, 학생에게 전달된다.

지난해에는 악기기증·나눔 캠페인을 통해 40일간 총 25종 626점의 악기를 기증받았으며, 기증받은 악기는 우리 동네기움센터, 50플러스센터, 아동복지협회, 청소년센터에 전달됐다.

악기 기증은 유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기증 방법은 서울 소재 아름다운 가게 29개 매장 혹은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 SW 개발자 양성·취업 돕는다

SW 인재양성 프로그램 ‘씩’

서울시는 웹, 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SW인재 양성 프로그램 ‘씩(SSAC, Seoul Software Academy Cluster)’ 1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씩은 SW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SW기업 채

용까지 연계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다.

씩 과정은 ▲체계적인 현장형 커리큘럼 ▲현업 전문가의 교육 ▲실전형 프로젝트 ▲취업과정 지원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 커리큘럼은 200개가 넘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 기술언어, 개발 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구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대기업

개발팀장 등 현업 실전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10명 단위의 소규모 집중 클래스도 열린다.

시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습 효과가 높은 동료학습, 집중멘토링·코칭, 실전프로젝트 교육 비중을 높였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며 웹, 앱,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로봇 등 5개 분야 7개 과정이 운영된다. 기간은 3~6개월이다.

총 120명 규모로 모집하며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클러스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2 | 해질 / 18:08

10월 6일 (화)  
음력 : 8월 20일

수도권 날씨  
8 ~ 1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4/19
- 동두천 5/19
- 가평 4/19
- 파주 5/19
- 서울 8/19
- 양평 6/20
- 용인 8/18
- 수원 8/18
- 평택 6/19
- 백령도 13/17
- 인천 10/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